

세 · 번 · 상 · 식

‘더러운 금(?)’



금을 포함하여 은·백금·이리듐 등과 같이 대기 중에서 안정되어 녹이 잘 슬지 않고, 아름다운 금속광택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특히 귀금속(貴金屬: precious metal)이라고 하며, 이에 상대되는 철·구리 같은 금속이 바로 비금속(卑金屬: base metal)이다.

귀금속은 문자 그대로 산출량이 적어 곧 희귀해서 값이 비싼 것이다. 화폐·장신구·메달·공예품 등의 재료로 쓰이며 비금속에 비해 녹는 점이 높고, 연신성(延伸性)이 뛰어나며, 약품에 잘 녹지 않으며, 열·전기의 전도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귀금속 특히 금은 수백·수천년의 세월이나 어떠한 약품처리에도 잘 변질되지 않아 영원히 변치 말자는 뜻에서 결혼 예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들 귀금속 중 일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 물러서 장식품·공예품 등에 그대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여 구리 등 다른 금속과 합금의 방식으로 이용 될 때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귀금속은 앞에서의 용도 이외에 전기적 특성이 독특하여 정밀 전자 제품 등에도 요

긴하게 쓰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선진국 업체들이 채굴작업 후 폐기물을 강·바다·호수 등에 무단 투기하는 등 자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파헤쳐진 땅과 화학처리된 암석가루는 광산 주변을 사막화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며 더 큰 해악은 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안화물과 수은이 핵폐기물보다 더 심한 유독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각자 해당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단체 중 하나가 미국의 금광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항해서 생겨난 단체가 바로 환경단체라는 것만 봐도 금광 주변 오염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광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는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닌 듯 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지방 금광개발 문제로 그곳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개발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민들의 일부는 금광개발로 지역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주장과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갈려서 다툼

다는 소식이었다. 현명한 결과 도출이 있었으면 한다.

관세율 표에서 광석으로서의 귀금속 광은 HS2616 호에, 제련된 원료상태의 귀금속과 그 제품은 71류에 각기 분류된다.

복숭아(PEACH)

복숭아는 장미과의 낙엽과수로서 사과, 포도, 배 및 감보다는 재배량이 많지 않으나 우리민족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 주요 과실의 하나이다. 중국 원산으로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양으로 전해졌으며, 17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나갔다. 미국인을 비롯하여 유럽 사람들도 복숭아를 좋아하며 특히 페르시아인들이 즐겨 애용하여 그 학명이 Persoca이고, 영어로는 Peach, 프랑스어로는 Perche라 한다. 동양에서는 악이나 병마를 퇴치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고대 중국에서는 장수를 상징하는 과실로 한나라 서왕모가 무제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천계로부터 복숭아를 받아 받쳤다는 기록이 있다. 또 AD700년경 중국의 시경(詩經)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복숭아에 비유한 시가 있다.

복숭아는 씨와 과육이 쉽게 떨어지는 이핵과(離核果)와 잘 떨어지지 않는 점핵과(粘核果)로 구분하며, 과피의 털 유무에 따라 털복숭아와 털이 없고 매끄러운 유도(幼桃)의 두가지로 나

누기도 한다.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이며, 주석산·사과산·시트르산 등의 유기산이 1% 가량 들어 있고, 비타민 A와 개미산·초산·바레리안산 등의 에스테르와 알코올류·알데히드류·펙틴 등도 풍부하다. 과육에는 유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아스파라긴산이 많다. 특유의 향은 에스테르·알코올류·알데히드가 어울려서 낸다.

과육이 흰 백도와 노란 황도로 나뉘는데, 생과일로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백도를 쓰고,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는 단단한 황도를 쓴다. 특별히 차이가 있는 성분은 비타민 A의 함량으로 황도가 백도보다 10배 정도 많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복숭아의 씨를 도인(桃仁)이라고 하여 폐질환, 월경불순 및 월경통에 이용하고 있으며 말린 복숭아 꽃(백도화, 白桃花)은 이노, 준하제, 변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 있다. 민간요법에서는 생선으로 인한 식중독



에 신선한 복숭아를 껍질째 먹으면 해독된다고 한다. 또한 복숭아의 유기산은 담배의 니코틴 제거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므로 애연가들에게 권장할 만한 과일이다. 단 장어와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자라와 먹으면 가슴통증을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품은 껍질과 씨를 제거하여 반으로 절단한 백도(복숭아)를 설탕, 구연산, 물, 비타민씨 등으로 된 조미액에 저장처리한 후 살균한 것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다.

[세번정정이유]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로 신고하였다.

제2106호에는 관세율표 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본 품은 원상의 복숭아를 주로 하여 만든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2008호 (3)항 “시럽으로 조제된 과일”, (4)항 “살균한 과육”, (5)항 “복숭아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의 내용으로 볼 때 본품은 제2106호가 아닌 제20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숭아로서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 특계된 HSK 2008.70-1000호로 정정 분류하게 되었다. ㉔

통 • 관 • 뉴 • 스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으로 실거래 가격 신고의식 확산

관세청의 불법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 시행이 2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통마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이 32%나 감소했으며 매밀 등 품목의 수입신고 가격 상승으로 약 48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농·수산물로 인한 농어민 생산기반 잠식 및 피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2006년 1월 28일까지 140일간 대대적인 ‘불법농·수산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가 국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데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저가수입, 수량초과, 품명위

장, 밀수입 등 불법수입 유형이 다양한데 맞춰 단계별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적발된 주역 품목은 옥수수(358억원), 고추(48억원), 김치(26억원) 등으로 적발된 범죄유형은 저가 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포탈이 120건 599억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적발 실적 건수면 67%, 금액 면으로는 90%나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올해를 불법 농수산물의 국내 반입차단 원년의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단속기간이 종료되는 2006년 2월 관세청장 주재로 관련 정부기관,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특별단속 보고대회를 갖고 농수산물 단속 전담기구 상설화, 단속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APEC 통관절차위원회 비전·성과 책자 배포

관세청은 2005년에 개최한 APEC통관절차위원회의 비전과 성과를 담은 영문자료집 'Blue Print' 를 발간, APEC 21개 회원국과 세계관세기구에 배포했다. 블루 프린트는 97년부터 APEC 개최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라는 APEC의 목표를 관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세관 현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에서 통관 절차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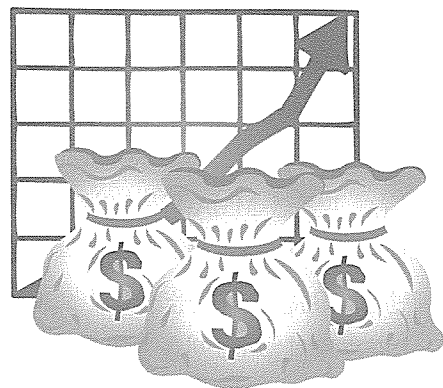
관세청이 금번 제작한 2005년 Blue Print는

관세행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관 민간 협력회의 개최결과와 관세청이 주도해 신규 공도 이행계획으로 채택한 APEC 무역안전과 신속통관지침, 반출소요시간 측정 등을 다양하게 신고 있다.

중국, 내년 초부터 위안화 환율변동 커질 전망

중국의 외환거래제도 개혁안 등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 초부터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2005년 9.23일 은행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인이 접하는 체감환율(매입·매도 고시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한 데 이어, 11.24일에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와 상대매매방식의 은행간 현물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 제도들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는 위안화 환





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년 봄으로 예고된 ▲ 미국의 슈머-그람 대 중국 공정무역법안 입법화 추진 ▲ 환율 조작국 지정 재검토 등 외부환경 역시 중국이 2006년 초 위안화의 실질적인 추가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환당국은 허용 변동폭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계속 유지한 채 대내외 환경에 따라 위안화의 절상 폭과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중 절상 폭은 5% 내외로 완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저가의 가공용 수입쌀이 밥상용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97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매년 80~90천 톤 수준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 같은 수입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시중 쌀값의 1/3수준으로(50천원/80kg)공급함으로써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았으며, 특히 부정유통의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돼 현행 단속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가공용 수입쌀은 원칙적으로 쌀가루형태로 1차 가공해 공급하게 되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떡·면류 등에 대해 쌀가루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업체의 가공능력과 업체수요조사, 제품 적응시험, 표준규격, 적정가공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한다.

또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부정유통 문제를 야기한 쌀 튀밥 등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처별 판매물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판매량의 허위·누락 등 부실사태가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은 물론, 검찰수사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종합대책 중 특별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문은 대책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1월부터, 『가공용 쌀 공급지침』은 금년 12월 중 전면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아시아-북미간 해상운임 큰폭 인상 전망

내년도 아시아-북미간의 해상운임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otra 시카고 무역관에 따르면 태평양항로안전협의회(TSA), 극동구주항로운임동맹(FEFC), 대서양항로안정화협의회(TACA) 등이 내년도 해상운임 인상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항로안전협의회(TSA)는 최근 내년도 아시아와 북미지역간 운임을 40피트 컨테이너 당 최소 150달러 인상한다는 운임 조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TSA는 내년 6월부터 11월말 사이에 20피트 컨테이너당 400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징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러한 TSA의 해상 운임비 인상과 트럭, 철도 운송비, 그리고 빈 컨테이너 이동비용 인상 등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간 운임 비용은 약 7%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극동구주항로운임동맹(FEFC)은 20피트 컨테이너의 운임 가격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200달러,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50달러 인상기로 합의 했다. FEFC는 이에 앞서 오는 12월 12일부터 아시아와 유럽 해상 운임을 20피트 컨테이너당 250달러 인상기로 하는 등 분기마다 운임을 인상하고 있다.

한편 대서양항로안정화협의회(TACA)도 내년 1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는 16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200달러씩 인상한 상태이며, 내년 4월부터 추가로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

너 당 가격을 각각 240달러와 300달러씩 인상할 예정이다.

가짜상표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반입시도 원천 봉쇄

인천세관이 취약시간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가짜상표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반입시도를 원천 봉쇄한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가짜상표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실적이 48건에서 2005년 11월말 현재 78건으로 63%나 증가하고 또 원산지표시 부적정으로 인해 시정 작업을 한 후 통관되는 건수도 작년대비 34%이상 증가하는 등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4년 778건 → 2005년 11월말 현재 958건) 12월 7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일제 집중검사 및 상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종안 인천본부세관장은 정상근무시간 내에 통관되는 것보다는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근무시간외에 신청되는 위반우려가 있는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별하여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량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수입검사시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이미지를 D/B로 구축하고 위반업체는 수입신고시마다 정밀검사대상이 되도록 전산에 등록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㉞

자료출처 : 한국관세무역연구원